

시간의 풍경, 풍경의 시간

-예술가 이수원

이수원은 1977년 베네수엘라의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한국과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녔다. 자신의 출신과 정체성을 한 마디로 규정해야 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다. 교포라는 말로는 스스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이수원은 국적과 언어와 피부색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 작품들 그 중에서도 사진에 큰 매력을 느꼈다. 다행히 파리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예술 학교였다. 전시회장을 순례하듯 다녔다. 삶은 사진으로 만들어지는 한편의 영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이수원은 파리에서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했고, 2003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프랑스, 미국, 중국, 영국, 스페인,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페루, 칠레, 볼리비아, 파나마, 한국 등지에서 사진, 비디오 아트, 설치미술, 조각, 도예, 개념 미술 작업을 하며 전방위 예술가로 활동 중이다.

이수원의 작품에는 나와 너, 안과 밖, 빛과 어둠, 생성과 소멸, 과거와 미래, 기억과 망각, 순간과 영원 등의 주제가 공존한다. 특히, 사진 작업을 할 때 이수원은 플래시를 터트리지 않는다. 자연의 빛을 작품에 온전히 담아내는 일을 예술가의 소임으로 받아들인다. 파나마, 리마, 포르투알레그레,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마이애미, 카라카스, 마라카이, 메리다, 마라카이보, 아라야 등 중남미 도시들을 촬영하면서 이수원은 황혼의 순간을 포착했다. 해가 지고 불빛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그 덧없으면서도 새로운 이행기적인 징후들이 드러나는 도시의 풍경들을 사랑하지만, 이수원은 관찰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그저 바라만 보지 않으려 애쓴다. 이수원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자화상처럼 도시의 풍경을 재현한다. 모두 그녀가 기억하고 싶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시작된 작품이다.

하지만, 이수원의 풍경 작품에서 도시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장소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수원은 도시를 찍지만, 도시를 상징하는 장소를 오히려 배제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풍경을

재해석한다. 뉴욕 현대미술관 소장 작품인 이수원의 <<The Most Dangerous City in the World>>는 <<Purple Haze>>와 <<Lights On>>과 더불어 도시의 경관을 새로운 위치에서 촬영하는 방식을 취해 도시의 현실을 사회학적 상상력으로 재현해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C. 라이트 밀즈는 원거리에 있는 주제를 아우르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을 뜻하는 사회학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옮겨가는 사회학적 상상력이 이수원의 작품들을 관통하고 있다.¹ 이수원은 인간과 사회, 자아와 세계, 개인의 생애와 역사 사이의 상호 작용을 파악하는 통찰력은 익숙해진 고정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생각한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밤 풍경을 엘 아빌라(EI Avila) 국립공원의 산에서 바라본다는 행위 자체가 대담한 실험이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조차 <<The Most Dangerous City in the World>> 속 공간이 카라카스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수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도시의 이미지들이 과연 실재에 가까운 것인지 질문부터 던진다. 해질 무렵부터 밤늦게까지 사진을 찍으면서 어둠 속 카라카스가 새롭고 다채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음을 발견했다. 이수원은 어디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언제 도시를 사진으로 담아내느냐에 따라 그리고 얼마만큼의 거리에서 공간을 재현하느냐에 따라 그 도시의 이미지는 달라진다고 이야기한다. 관점의 차이가 인식을 결정짓는다는 이수원의 통찰은 그녀가 풍경 작업을 할 때마다 예외 없이 적용된다.²

베네수엘라 현대 미술계에서 풍경은 지나간 20세기의 주제처럼 인식되고 있었지만, 이수원은 그렇기 때문에 풍경을 탐험하고 새롭게 재현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처참하고 가혹한 현실이 역사적 증언이나 기록의 차원을 넘어서 풍경 속의 숭고함과 어떠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수원은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다.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자

1 C. 라이트 밀즈, 강희경 이해찬 옮김, 『사회학적 상상력』, 돌베개, 2004, pp.17-88 참조.

연의 빛을 기다리며 작업하듯이, 이수원은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작품의 구성이 달라지는 작업 과정을 마법의 일부처럼 받아들인다.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인위적으로 차단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신은 그저 진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심할 따름이라고 언제나 겸손하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환기시키는 메신저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할 때 이수원의 예술 철학은 더욱 돋보인다.

이수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여닫는 시간의 창이 매번 새롭게 구성된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성찰했다. 시간과 나의 존재가 회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고민한 연작 시리즈 <<How to Measure Time (2021)>>은 “우리들이 살아 온 시간은 우리의 영혼 속에, 바로 그 시간에 겪은 경험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임을 “인간에게 시간은 간단히 자취 없이 사라질 수는 없는 것”³임을 알려준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가 “나의 고유한 시간 감각, 활기 없이 꿈꾸는 듯한 동작 리듬에서 우뚝 솟아오르는 번개 같은 동작 리듬까지 이르는 나의 고유한 시간 감각을 재생해 내는 것이 나의 과제”⁴라고 밝혔던 것처럼, 이수원은 이민과 이주를 경험한 여성 예술가로서 자신의 기억을 시간으로 복원시키는 작업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2020년 11월에 뉴욕 현대미술관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수원은 팬데믹 시대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게 된 인류의 혼돈이 예술가 개인의 내면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탐문하게 되었다고 소식을 전하며, 자신의 그림자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 그림자로 다시 새로운 삶을 비추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15년 만에 자화상 연구에 다시 몰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수원이 새롭게 펼쳐놓게 될 작품들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2022년 봄, 이수원은 지난 20년 동안의 작업 가운데 가장 애착을 느끼는 작품들을 엄선

2 마들린 머피 터너, 『이수원 예술의 풍경과 거리』, 2020, <http://www.moma.org/magazine/articles/450>,

3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김창우 옮김, 『봉인된 시간-영화 예술의 미학과 시학』, 분도출판사, 2011, pp. 72-73

4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앞의 책, p.152

해 서울에서 첫 개인 전시회를 가진다. 이수원의 작품 안에서 재해석되고 재배치되는 시간의 풍경들은 우리에게 생명과 해방의 가치를 성찰하게 한다. 살아있는 것들은 빛나고 현재는 미래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이수원의 작품 속에서 배웠다. 홀연한 깨달음에 다가서게 된다.

장영은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 저자